

울무 틀 함정에 빠진 남유다 왕들과 역대하에 담긴 복음 -복음으로 여는 역대하- 역대하 36:22-23, 마태복음 23:35

정윤돈 목사님

* **대하36:22-23**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마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기리라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 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 만 지, 정, 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어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증거되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미션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하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 역대하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스가랴까지가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포로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 이것은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케 하신다. ‘만약에 언약가진 너희들이 부족하더라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이면계약 때문에, 능력과 조건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 내 돈, 내 교회,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다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진다. 나만 생각하면 문이 다 닫힌다.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나만 생각하면 있었던 문도 다 닫힌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창세기 3장,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조건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는가. 나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진 노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유있는 에스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문이 열리고 행복해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문을 다 닫는다.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거기에 중심만 가지면 된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살리면 된다. 영이 죽었는데 힘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추하고 악하고 부족한 나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무엇이 문제가 되겠니.’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 땅에서도 응답 안 받을 수가 없다.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역대기서의 또 다른 특징은 오직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직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리스도도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은 아브라함의 혈통,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었다. 북왕국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왕국은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역대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었다. 악하고 어리석은 왕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때 참된 솔로몬과 같은 부와 지혜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며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겨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부강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강대국이어서 사라지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선교를 모르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복음가진 엘리트들이 그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남유다 왕들의 잘못된 울무, 틀,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에 오르자마자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땅을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르호보암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의 울무에 빠지면 포악하고, 어리석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말씀도, 선생님의 말씀도,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르호보암처럼 될 수 있다.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을 가지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것이다. 노예, 포로, 종으로 있어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총리의 응답을 받는다.

(2) 또한 르호보암은 나미가 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겠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지라”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 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3) 또한 르호보암의 영적인 상태를 한 절로 표현한 것이 역대하 12장 14절이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비한 적도 있었지만 그의 잘못된 그 믿음과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흔들린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귀와 사탄이 어려움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란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재미없어서 떠나간다. 마귀에게 즐거움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4) 여호람 왕은 왕이 된 후 아우들과 백성들을 갈로 죽였다.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음의 방법을 살리는 것이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갈로 죽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5) 또한 역대하 22장 4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도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하시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의 행실을 배운 것이다.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피를 쓰고 아부를 하고 안간힘을 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린다. 다 양보해도 된다. 다 손해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6) 웃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여호와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결정적으로 더 큰 이유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나의 삶과 나의 가문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증인이 되면 된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에 갈 이유가 없

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된다.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되지 않는다.

(7)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8)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한 왕 중의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져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한 결과 결국 므낫세 왕은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앗수르로 끌려가고야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니까 모든 것이 돌아오는 응답을 받았다.

2. 두 번째로는 역대하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안에 많은 축복이 있다.

(1) 역대하 1장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스러운’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들의 구주이시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서밋엘리트 솔로몬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솔로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 70현장에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70산업, 237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2)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윈니스의 축복이다. 역대하 1장 1절을 함께 보겠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3) 솔로몬은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다. 번제는 인간들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이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일천 마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왕을 시작하였다. 즉 솔로몬은 완전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왕위를 시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원죄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타락하고 망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

(4) 또한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솔로몬이 누렸던 업적과 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보다 천만 배 많은 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자녀들의 축복을 조금이나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들의 중심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우리들과 후대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을 보겠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누릴 응답이다. “솔로몬의 세임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육백 세겔이며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삼백 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

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랍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삼 년에 일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올리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들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러한 부와 지혜와 풍요함이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이다. 이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5) 아사 왕은 복음과 언약의 길을 걸어갔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6)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복음과 언약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7)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역대하 30장 5절을 보겠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한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결국 유다 백성은 이방 왕인 고레스의 도움으로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언약기인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는다.

오늘도 역대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와 5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과 영력이다. 정확한 오직예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울무, 틀,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2. Vision, 비전과 지력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이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적인 지식과 전문성도 주실 것이다.
3. Dream, 꿈과 체력이다. 우리들이 만일 24시간 울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와 경제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의 중심을 조금만 전도에 집중해도 하나님께서는 경제력도 부여주실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이다. 의로운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실천해도 고레스와 같은 민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많은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많은 선한 왕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모두 누리게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